상생과 치유 가치로 바라본 발우공양은

진관사, 제5회 사찰음식 학술세미나 개최

사찰음식의 의과학적 가치 함께
발우공양 인문사회적 의미 조명
"건강한 질서 담긴 음식 문화"

이민우 기자 mincow@hyunbul.com


계호 스님은 발우공양과 통섭의 의미를 설명하고 사랑과 사회, 자연에 대한 연대감을 강조했다.

사찰음식과 발우공양으로 대표되는 전통 사찰식문화를 의학적·과학적·인문학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 진관사(주지 법해 스님)는 5월 2일 경내 한문화체험관에서 제5회 진관사 사찰음식 학술세미나 '사찰음식, 상생과 치유의 식문화'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의 기조발표 '사찰음식, 통섭의 그릇에 담다'를 시작으로 △사찰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만성 질환과 암 예방 측면에서 고찰(임윤정 동국대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사찰음식의 화학적 유해물질 저감효능: 연잎 성분의 발암물질 생성 및 돌연변이원성 억제 효과(신한승 동국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상생과 치유의 관점에서 본 발우공양 분석 '의식에 담긴 뜻'과 '동참자들의 반응'을 중심으로(구미래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진관사 사찰음식과 발우공양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유기준 상지대 명예교수)가 발표됐다.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은 기조발표에서 발우공양에 담긴 통섭의 의미를 설명했다. 스님은 "발우공양 참여를 통한 사람과 사회, 자연에 대한 공감과 연대감 형성과 같은 상생과 치유의 과정은 의미가 깊다"며 "발우공양의 정신과 가치가 유지된다면 새로운 시각으로 밥 먹는 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윤정 동국대 일산병원 교수는 사찰음식을 영양학적으로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임 교수는 "사찰음식은 단순한 채식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과 불교 정신인 참선과 마음 다스림이 풍부해 만성질환과 암 예방에 탁월하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차후 사찰음식을 접한 1000명을 대상으로 질환과 병원 방문 등을 조사하고 사찰음식을 접하지 않는 2000명과 매칭, 유의성을 분석해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혀 큰 호응을 얻었다.

구미래 불교민속연구소장은 발우공양 참가자들과의 면담을 바탕으로 발우공양을 '침묵과 집중' '비움과 상생' '감사와 발원' 측면에서 조명했다. 구 소장은 "발우공양 참가자들은 말이 끊어진 엄격한 대중공양에서 수행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며 침묵 속 유일하게 울리는 게송 소리는 참가자들에게 성스러움과 깊은 신심을 느끼게 해준다"고 말했다. 또한 "비움과 상생의 힘을 지닌 공양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음식을 뭇 중생과 함께하는 밥으로 인식하고 생반과 청수를 통해 모든 배고픈 중생에게 음식을 베푼다. 음식을 남김없이 비움으로써 자연과도 가까워진다"고 강조했다.

발우공양을 질서 있는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는 문화로 평한 유기준 상지대 명예교수는 "진관사의 사찰음식과 발우공양은 환경·사회·문화·윤리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제 진관사 사찰음식과 발우공양은 종교적 경계를 넘어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기 위해 사회로 나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승복 입은 사리불, 부처님께 법을 청하다

국립중앙박물관, 10월 13일까지
'영산의 모임 진천 영수사 괘불' 展
높이 9.2m·76㎏…140명 등장
'청문자' 사리불 도상 첫 사례 '눈길'


진천 영수사 괘불, 명옥 등 4인, 조선 1653년, 삼베에 색, 전체 크기 919×570.5cm, 진천 영수사 소장, 보물.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윤성용)이 5월 1일~10월 13일 관내 서화관 불교회화실(상설전시관 2층)에서 '2024년 국립중앙박물관 괘불전-영산의 모임 진천 영수사 괘불'을 진행한다.

2024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는 진천 영수사(靈水寺) 소장 보물인 '진천 영수사 영산회 괘불탱(이하 영수사괘불)'을 소개하는 자리다.

1653년(효종 4)에 제작된 '영수사 괘불'은 현전하는 괘불 117점 중 조성 시기가 이른 괘불로 가치가 높다. 괘불 화면 아래쪽에 다양한 인물군이 등장하는데, 이는 18세기 이후 정형화된 괘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요소로 이른 시기 괘불의 양상을 보여준다.

'영수사 괘불'은 전체 높이 919㎝, 너비 570.5㎝, 무게 76㎏에 달하는 규모다. 현전하는 괘불 중 가장 많은 인물인 140명이 등장한다. 이들은 고대 인도 왕사성 영산에서 열린 석가모니불의 설법 모임에 참여한 청중들이다. 이 영산회상(靈山會上) 모임은 괘불을 비롯한 불화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재이다. 특히 수많은 인물 가운데 화면 중앙 높은 연화대좌 위에 앉은 석가모니불과 그를 향해 무릎을 꿇고 앉아 가르침을 청하는 사리불존자가 눈길을 끈다. 부처님의 제자 사리불존자는 승려의 차림으로, 보살이 아닌 승려 모습의 청문자(聽聞者, 부처에게 법을 청하고 듣는 사람)가 불화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례이기에 더욱 주목을 끈다.

화기에 괘불 제작자 12명과 후원자 149명의 이름과 제작에 소요된 물품이 적혀 있는 것도 특징이다. 괘불 조성 불사를 담당한 승려 중 괘불을 그린 화승은 네 명으로 명옥(明玉) 스님, 소읍(少揖) 스님, 현욱(玄旭) 스님, 법능(法能) 스님이다.

괘불 조성 후원자 이름 뒤에 대부분 '양주(兩主)' '양위(兩位)'가 쓰여 있는데, 이를 통해 부부가 함께 불사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161명의 정성이 모여 완성된 괘불로, 이들은 괘불 바탕천에서부터 안료, 복장물로 쓸 물품, 소금, 후추, 장과 같은 식재료, 물품화폐인 삼베에 이르기까지 여러 물품을 시주했다.

임은호 기자

지율스님 '내성천 하늘을 날아오르다'

내성천 제비숙영지 6년 기록
보호구역 지정 서명운동 전개도


지율 스님은 내성천 제비숙영지를 지키기 위해 6년간 카메라를 들었다.

지율 스님이 6년간 내성천 제비숙영지를 기록한 다큐영화 '내성천 하늘을 날아오르다' 공동체 상영을 진행한다.

영화는 4월부터 10월 말까지 내성천 유역을 찾아오는 제비와 제비숙영지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40여 분짜리 단편으로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와 체코의 이흘라바영화제에 공식초청되기도 했다.

지율 스님의 설명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0년부터 제비를 기후위기환경지표종으로 지정하고 해마다 전국 단위의 제비서식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제비 개체수가 18년 전에 비해 100분의 1로 준 상태다.

10만 마리의 제비가 잠자는 숲은 현재 영주댐 건설로 훼손 위기에 처하자 지율 스님은 내성천에서 살고 있는 생명붙이의 목록을 지워가는 은밀한 작업과 환경문제의 구조적 실상을 알리고 내성천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중고 캠을 들고 강에 나갔다. 매달 내성천의 변화를 기록하고 '내성천의 친구들'과 생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영화로 탄생할 수 있었다.

이번 활동을 위해 지율 스님은 15년 동안 영주댐 중지가처분 소송에 앞장섰으며, 철거 소송의 선정당사자로 내성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직접 소장을 쓰고 법정에 섰다.

'공동체 상영'은 영화를 함께 볼 공동체 108곳을 모집하고 제비숙영지 보호에 함께 하도록 제안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스님은 영화 상영 후 결과를 담아 정부 각 부처에 보호대책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체 상영은 15명~20명 이상의 모임을 대상으로 하며 성당,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에서의 상영도 가능하다. 전주국제영화제 종료 후인 5월 10일 이후부터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 요청은 이메일(chorokgm@naver.com)로 문의하면 된다. 예고편은 유튜브(youtu.be/NIdNf9k_SHw)에서 확인 가능하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국보 금동반가사유상 3D로 만나볼까?

국립중앙박물관, 유산 3D 제작
금동관음보살입상 등 성보 눈길


금동반가사유상.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윤성용)이 국보 반가사유상 등 문화유산 16건의 3D 데이터를 공개한다. 16건에는 금동반가사유상 2건을 비롯해 철제여래좌상, 금동관음보살입상, 금동여래입상 3건, 청동 금강령 등 성보가 대거 포함돼 눈길을 끈다.

3D 데이터는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며,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출처 표기 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3D 데이터는 VR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올해 안으로 '백자 달항아리' 등 총 10건의 3D 데이터를 추가로 구축, 공개할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식약처에서 인정한 의료기기법 제2조
특허 등록
의료기기 근적외선 침대
피부 피하층까지 침투하여 온열효과가 뛰어나며 산화질소를 생성해
현재 세계 각국 의료계의 질병치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편백나무의 좋은 기운을 함께 느껴보세요!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숯가마의 열기가 고스란이 녹아든
숯(탄소) 침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원활, 각종중금속배출
• 통증완화(신경통,관절통,견통예방)
• 숙면(불면증,피로회복,좌골신경통)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저혈압),
• 암예방(온열에의한 악성종양의 사멸)
• 새집증후군(포름알데히드)

★ 일반황토보다 187배가 넘는 고농축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게르마늄 황토알파토(사계절용) ★
온열요법 건강매트·방석
36.5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을 높여주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킵니다.
2만개의 게르마늄황토알파토 볼이 촘촘히 박혀있어
체온을 올리고 세포를 활성화하며 독소를 배출함으로써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림프구 계통인 세포, NK세포가 활성화되고 면역력은 5~10배 강해져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없애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과 세포조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노화방지,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보입니다.
게르마늄황토알파토 건강매트 · 방석의 효능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 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 원활
• 통증완화(신경통, 관절통, 견통예방)
• 숙면(불면증, 피로회복, 좌골신경통) 효과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 저혈압)
• 암예방(온열에 의한 악성종양 사멸) 효과

매트 99만원
(SS사이즈 : 1100×2000)



방석 35만원
황토알파토 건강베개
■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 경추척추통증개선
■ 코골이 개선
■ 목디스크 효과
■ 지압효과
■ 거북목 통증완화
베개 20만원

그린에너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4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